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1 주차 (10:7~42)

(2015년 6월 14일 - 2015년 6월 20일)

(제3권 21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6 월 1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2)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0:7~21)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양의 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 (8절) 나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πάντες ὅσοι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κλέπτει εἰσὶν καὶ λησταί.)
그러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ἀλλ' οὐκ ἤκουσαν αὐτῶν τὰ πρόβατα.)
- (9절) 내가 그 문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나를 통하여 만약 어떤 이가 들어 오면 (δι' ἐμοῦ ἐάν τις εἰσέλθῃ)
그는 [나를 통하여] 구원될 것입니다 (σωθήσεται)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나를 통하여]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καὶ εἰσελεύσεται καὶ ἐξελεύσεται καὶ νομὴν εὕρησει.)
- (10절) 도둑은 만약 그가 훔치고 도륙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ὁ κλέπτης οὐκ ἔρχεται εἰ μὴ ἵνα κλέψῃ καὶ θύσῃ καὶ ἀπολέσῃ·)

- 나는 그들(양들)이 생명을 갖도록하고 넘치도록 갖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ἐγὼ ἦλθον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καὶ περισσὸν ἔχωσιν.)
-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선한 목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τίθησιν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2절) 고용된 사람인 그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그가 다가 오는 늑대를 봅니다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그러자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καὶ ἀφίησιν τὰ πρόβατα καὶ φεύγει)
그 늑대는 그들[양들]을 사로잡고 흩어지게 합니다 (-καὶ ὁ λύκος ἀρπάξει αὐτὰ καὶ σκορπίζει-)
- (13절) 왜냐하면 그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양들이 그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ισθωτὸς ἔστιν καὶ οὐ μέλει αὐτῷ περὶ τῶν προβάτων.)
-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는 나의 것들[양들]을 알고 나의 것들[양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γινώσκω τὰ ἐμά καὶ γινώσκουσί με τὰ ἐμά.)
- (15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καθὼς γινώσκει με ὁ πατὴρ καὶ γὼ γινώσκω τὸν πατέρα.)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양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καὶ τὴν ψυχὴν μου τίθημι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6절)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ὶ ἄλλα πρόβατα ἔχω ἃ οὐκ ἔστιν ἐκ τῆς αὐλῆς ταύτης.)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καὶ κεῖνα δεῖ με ἀγαγεῖν)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σουσιν.)
그리고 한 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καὶ γενήσονται μία ποίμνη, εἷς ποιμὴν.)
- (17절) 이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με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 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ίθημι τὴν ψυχὴν μου.)
그 결과 나는 그것[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ἵνα πάλιν λάβω αὐτήν.)
- (18절)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αἶρει αὐτήν ἅπ' ἐμοῦ),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ἀλλ' ἐγὼ τίθημι αὐτήν ἅπ' ἐμαυτοῦ).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ἐξουσίαν ἔχω θεῖνα αὐτήν.)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πάλιν λαβεῖν αὐτήν.)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ταύτην τὴν ἐντολὴν ἔλαβ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 (19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Σχίσμα πάλιν ἐγένετο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διὰ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δὲ πολλοὶ ἐξ αὐτῶν.)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쳤습니다 (δαμόνιον ἔχει καὶ μαίνεται.)
왜 그로부터 듣습니까? (τί αὐτοῦ ἀκούετε.)
- (21절)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이 말들은 악한 영에 들린 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οὐκ ἔστιν δαμονιζομένου.)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μὴ δαμόνιον δύναται τυφλῶν ὀφθαλμοὺς ἀνοῖξαι.)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14~1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11 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 절은 앞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16 절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10:16).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양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양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0 장 1 절~5 절은 유대주의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의 일부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 일부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으로 알고 따라서 메시야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29-30).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데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핍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19-24).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원에 실패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토록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힘없고 무능한 분이 됩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모든 결정권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

람은 반드시 믿게 하여 구원하십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장 44 절~49 절을 읽겠습니다.

“⁴⁴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⁴⁵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⁴⁶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⁴⁷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⁴⁸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⁴⁹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행13:44-49).

그래서 예수님은 16 절에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방인 중 일부가 구원받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인도해 내야 할 그 양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어쩌다 우연히 구원받았다거나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놀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주의자, 즉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던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역사가 깊어지면서 점점 교조화되고 많은 부분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열심이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대적자의 위치에서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양떼 사랑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7~21)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양의 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 (8절) 나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πάντες ὅσοι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κλέπτει εἰσὶν καὶ λησταί.)
그러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ἀλλ' οὐκ ἤκουσαν αὐτῶν τὰ πρόβατα.)
- (9절) 내가 그 문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나를 통하여 만약 어떤 이가 들어 오면 (δι' ἐμοῦ ἐάν τις εἰσέλθῃ)
그는 [나를 통하여] 구원될 것입니다 (σωθήσεται)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나를 통하여]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καὶ εἰσελεύσεται καὶ ἐξελεύσεται καὶ νομὴν εὕρησει.)
- (10절) 도둑은 만약 그가 훔치고 도륙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ὁ κλέπτης οὐκ ἔρχεται εἰ μὴ ἵνα κλέψῃ καὶ θύσῃ καὶ ἀπολέσῃ·)

- 나는 그들(양들)이 생명을 갖도록하고 넘치도록 갖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ἐγὼ ἦλθον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καὶ περισσὸν ἔχωσιν.)
-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선한 목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τίθησιν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2절) 고용된 사람인 그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그가 다가 오는 늑대를 봅니다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그러자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καὶ ἀφίησιν τὰ πρόβατα καὶ φεύγει)
그 늑대는 그들[양들]을 사로잡고 흩어지게 합니다 (-καὶ ὁ λύκος ἀρπάζει αὐτὰ καὶ σκορπίζει-)
- (13절) 왜냐하면 그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양들이 그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ισθωτὸς ἔστιν καὶ οὐ μέλει αὐτῷ περὶ τῶν προβάτων.)
-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는 나의 것들[양들]을 알고 나의 것들[양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γινώσκω τὰ ἐμὰ καὶ γινώσκουσί με τὰ ἐμὰ.)
- (15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καθὼς γινώσκει με ὁ πατήρ καὶ γὼ γινώσκω τὸν πατέρα.)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양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καὶ τὴν ψυχὴν μου τίθημι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6절)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ὶ ἄλλα πρόβατα ἔχω ἃ οὐκ ἔστιν ἐκ τῆς αὐτῆς ταύτης.)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κάκεινα δεῖ με ἀγαγεῖν)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σουσιν.)
그리고 한 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καὶ γενήσονται μία ποίμνη, εἷς ποιμὴν.)
- (17절) 이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με ὁ πατήρ ἀγαπᾷ)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 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ίθημι τὴν ψυχὴν μου.)
그 결과 나는 그것[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ἵνα πάλιν λάβω αὐτήν.)
- (18절)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αἶρει αὐτήν ἅπ' ἐμοῦ),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ἀλλ' ἐγὼ τίθημι αὐτήν ἅπ' ἐμαυτοῦ).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ἐξουσίαν ἔχω θεῖναι αὐτήν.)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πάλιν λαβεῖν αὐτήν.)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ταύτην τὴν ἐντολὴν ἔλαβ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μου.)
- (19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Σχίσμα πάλιν ἐγένετο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διὰ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δὲ πολλοὶ ἐξ αὐτῶν.)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쳤습니다 (δαμόνιον ἔχει καὶ μαίνεται.)
왜 그로부터 듣습니까? (τί αὐτοῦ ἀκούετε.)
- (21절)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이 말들은 악한 영에 들린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οὐκ ἔστιν δαμονιζομένου.)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μὴ δαμόνιον δύναται τυφλῶν ὀφθαλμοὺς ἀνοῖξαι.)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7 절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예수님이 영혼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어놓다’라는 헬라어 단어 ‘티데미’(τιθημι)는 ‘위치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위치시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이고 그 죄인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위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죄인들의 위치에서 죄인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였고 또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사랑일 수 있나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성적이고 달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이니 조건없는 사랑이니 라면서 너무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직접 못박으며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도록 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향하셨는데 그 진노가 바로 사랑이 되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 그 피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위치를 바꾸어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까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피와는 무관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경중을 따져 저울질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동기마저 아직 찾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지요.

“¹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¹⁵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¹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4-17).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인가요?

17 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어 ‘히나’ (ἵνα)를 목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적보다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도로 돌려 받기 위해 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내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도로 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돌려 받을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결과 부활을 얻게 된 것이지요.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내어 놓는 것도 부활에 이르는 것도 모두가 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죽이고 말고는 유대인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내어주고 또한 다시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 놓거나 혹은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은 오직 그분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ὅτε οὖν ἔλαβεν τὸ ὄξο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τετέλεστα,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 (요. 19:30).

여기서 한글 성경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가 영을 넘겨주셨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권한을 행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권한의 엄청난 수혜자인 셈이지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을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당신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나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의 집착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7~21)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양의 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 (8절) 나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πάντες ὅσοι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κλέπτει εἰσὶν καὶ λησταί.)
 그러나 그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ἀλλ' οὐκ ἤκουσαν αὐτῶν τὰ πρόβατα.)
- (9절) 내가 그 문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ἡ θύρα·)
 나를 통하여 만약 어떤 이가 들어 오면 (δι' ἐμοῦ ἐάν τις εἰσέλθῃ)
 그는 [나를 통하여] 구원될 것입니다 (σωθήσεται)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나를 통하여]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καὶ εἰσελεύσεται καὶ ἐξελεύσεται καὶ νομὴν εὕρησει.)
- (10절) 도둑은 만약 그가 훔치고 도륙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ὁ κλέπτης οὐκ ἔρχεται εἰ μὴ ἵνα κλέψῃ καὶ θύσῃ καὶ ἀπολέσῃ·)

- 나는 그들(양들)이 생명을 갖도록하고 넘치도록 갖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ἐγὼ ἦλθον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καὶ περισσὸν ἔχωσιν.)
-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선한 목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τίθησιν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2절) 고용된 사람인 그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ὁ μισθωτὸς καὶ οὐκ ὢν ποιμὴν)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οὐ οὐκ ἔστιν τὰ πρόβατα ἴδια)
그가 다가 오는 늑대를 봅니다 (θεωρεῖ τὸν λύκον ἐρχόμενον)
그러자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καὶ ἀφίησιν τὰ πρόβατα καὶ φεύγει)
그 늑대는 그들[양들]을 사로잡고 흩어지게 합니다 (-καὶ ὁ λύκος ἀρπάξει αὐτὰ καὶ σκορπίζει-)
- (13절) 왜냐하면 그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양들이 그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ισθωτὸς ἔστιν καὶ οὐ μέλει αὐτῷ περὶ τῶν προβάτων.)
-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Ε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는 나의 것들[양들]을 알고 나의 것들[양들]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γινώσκω τὰ ἐμὰ καὶ γινώσκουσί με τὰ ἐμὰ.)
- (15절) 이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역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καθὼς γινώσκει με ὁ πατήρ καὶ γὼ γινώσκω τὸν πατέρα.)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양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καὶ τὴν ψυχὴν μου τίθημι ὑπὲρ τῶν προβάτων.
- (16절) 그리고 나는 이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ὶ ἄλλα πρόβατα ἔχω ἃ οὐκ ἔστιν ἐκ τῆς αὐλῆς ταύτης.)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κάκεινα δεῖ με ἀγαγεῖν)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καὶ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σουσιν.)
그리고 한 무리가 될 것이고 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καὶ γενήσονται μία ποίμνη, εἷς ποιμὴν.)
- (17절) 이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με ὁ πατήρ ἀγαπᾷ)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 내어 놓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ίθημι τὴν ψυχὴν μου.)
그 결과 나는 그것[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ἵνα πάλιν λάβω αὐτήν.)
- (18절)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빼앗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αἶρει αὐτήν ἅπ' ἐμοῦ),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ἀλλ' ἐγὼ τίθημι αὐτήν ἅπ' ἐμαυτοῦ).
나는 그것을 내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ἐξουσίαν ἔχω θεῖναι αὐτήν.)
나는 그것을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πάλιν λαβεῖν αὐτήν.)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ταύτην τὴν ἐντολὴν ἔλαβ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 (19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Σχίσμα πάλιν ἐγένετο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διὰ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 (20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δὲ πολλοὶ ἐξ αὐτῶν.)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쳤습니다 (δαμόνιον ἔχει καὶ μαίνεται.)
왜 그로부터 듣습니까? (τί αὐτοῦ ἀκούετε.)
- (21절)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이 말들은 악한 영에 들린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οὐκ ἔστιν δαμονιζομένου.)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μὴ δαμόνιον δύναται τυφλῶν ὀφθαλμοὺς ἀνοῖξαι.)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19~2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설명으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다투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이 악한 영을 가진 미친 자라고 주장하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악한 영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나뉘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아예 들을 가치가 없다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서로 나뉘어서 다투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가르치는 곳마다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주의라는 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가두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눈에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어울리며 종교적 틀에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보이면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엄연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을 정도이니 까요. 요즈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회의 불순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비진리인 이 세상에 진리가 올 때 다음과 같은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³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³⁵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³⁶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³⁷ 아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³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4-38).

이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여지없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갖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배제합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진리, 깨달음, 또는 절대자에게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같은 배타성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그의로움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선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한 그 앞에서 한 말입니다(행 4:6 참조).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준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 또한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심문을 받을 당시 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당사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이지요.

이처럼 진리의 유일성과 배타성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취사선택의 문제이거나 선택 가능한 여러 옵션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며 사법 당국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²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³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⁴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⁵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열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소 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행 24:1-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 내려고 찾았으나 ⁶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⁷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행 17:5-7).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로 낙인찍혔고 이단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전한 대가입니다. 요즈음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애를 씁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미명아래 세상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와 급기야는 어디가 세상이고 어디가 교회인지 분간이 되지 않게 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진리가 지니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진리 때문에 당신이 핍박을 받고 당신이 전한 진리 때문에 남들이 혼란스러워하던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22~30)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원문해석하기

- (22절) 그 때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τότε τὰ ἐγκαίρια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그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χειμῶν ἦν.)
-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안을 다니셨습니다
(καὶ περιεπάτει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ῷ ἱερῷ ἐν τῇ στοᾷ τοῦ Σολομῶνος.)
- (24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ύκλωσαν οὖ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ἔλεγον αὐτῷ·)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ἕως πότε τὴν ψυχὴν ἡμῶν αἴρεις)
만약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십시오
(εἰ σὺ εἶ ὁ χριστός, εἰπὲ ἡμῖν παρρησίᾳ.)
-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당신들에게 말을 했고, 당신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αῦτα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 (26절)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ἀλλὰ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ἐστὲ ἐκ τῶν προβάτων τῶν ἐμῶν.)
- (27절) 나의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τὰ πρόβατα τὰ ἐμὰ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ουσιν·)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καὶ γὰρ γινώσκω αὐτὰ καὶ ἀκολουθοῦσίν μοι.)
-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καὶ γὰρ δίδωμι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들은 결코 영원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나의 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καὶ οὐχ ἄρπάσσει τις αὐτὰ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μου.)
 (29절)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ὁ πατήρ μου ὁ δέδωκέν μοι πάντων μείζον ἔστω.)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ἄρπάξαι ἐκ τῆς χειρὸς τοῦ πατρὸς.)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ἐγὼ καὶ ὁ πατήρ ἓν ἐσμεν.)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22 절을 읽으십시오. “그 때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겨울이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고 수전절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초막절 축제 때 오셨다가 수전절까지 계속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르신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로 돌아 오셨다가 수전절이 되어서 다시 방문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또 다시 유대인들과 의견 충돌을 빚으셨다는 것이지요.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명절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하누카는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시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명절입니다. 유대 역사에 따르면 알렉산더 제국이 네 나라로 분리된 후 유대는 셀루시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셀루시드의 황제중 안티오크 5 세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실시했는데 유대는 이런 자신의 정책에 가장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유대 성전을 훼손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성전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안티오크 4 세의 무리한 헬레니즘 정책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막카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독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 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한 후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일간 열리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인간들이 정한 절기인 셈입니다. 사실 하누카는 마카비 혁명을 자축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명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유대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교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런 유대주의에 의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그날을 기념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애지중지 아끼고 목숨걸고 지켰던 그 성전은 옛 성전이며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성전은 인간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보지요.

“4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16-23).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성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린 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23~2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αἰρω)인데 이 단어는 ‘들어 올린다’, ‘제거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의 영혼을 봉 뜯 상태로 두려고 하십니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봉 뜯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일임이 분명하기에 그가 분명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또 반대로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자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수많은 종교적 계율들을 버려야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마저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배워 그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 라는 식의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일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유대주의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유대주의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니 종이냐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8-11).

당신은 어떠한가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습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22~30)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원문해석하기

- (22절) 그 때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Εγένετο τότε τὰ ἐγκαίνια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그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χειμῶν ἦν.)
-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안을 다니셨습니다
(καὶ περιεπάτει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ῷ ἱερῷ ἐν τῇ στοᾷ τοῦ Σολομῶνος.)
- (24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ύκλωσαν οὖ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ἔλεγον αὐτῷ·)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ἕως πότε τὴν ψυχὴν ἡμῶν αἴρεις)
만약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십시오
(εἰ σὺ εἶ ὁ χριστός, εἰπὲ ἡμῖν παρρησίᾳ.)
-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당신들에게 말을 했고, 당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αῦτα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 (26절) 그러나 당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ἀλλὰ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ἐστὲ ἐκ τῶν προβάτων τῶν ἐμῶν.)
- (27절) 나의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τὰ πρόβατα τὰ ἐμὰ τῆς φωνῆς μου ἀκούουσιν·)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κἀγὼ γινώσκω αὐτὰ καὶ ἀκολουθοῦσίν μοι.)
-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κἀγὼ δίδωμι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들은 결코 영원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나의 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καὶ οὐχ ἄρπάσει τις αὐτὰ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μου.)

- (29절)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ὁ πατήρ μου ὃ δέδοκέν μοι πάντων μείζον ἐστίν.)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ἀρπάξαι ἐκ τῆς χειρὸς τοῦ πατρὸς.)
-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ἐγὼ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ἑσμέν.)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2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정체를 밝힐 것을 다그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진리를 설교했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혹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늘 의혹이 생기고,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 진리의 시각이 아닌 자신이 그 동안 형성해 온 종교적 세계관, 철학적 틀 안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 듣지 못하도록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바로 눈 앞에 존재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미스테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인간적인 교훈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8-10).

“5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5-19).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인간들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하고 그 계신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한다고 모두에게 이런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인간의 의지, 노력,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문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당신을 그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나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들을 어떻게 찾고 확인하고 있나요?

2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세개의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하나같이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이미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결여 된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말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²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²⁵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²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나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28~30 절을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든 그 무엇으로든 그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³¹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³³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³⁶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³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³⁹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1-39).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도 신성모독으로 모는 사람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31~42)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던지려고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Εβαστασαν πάλιν λίθ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ἵνα λιθάσωσιν αὐτόν.)
-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당신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일들을 보였습니다 (πολλὰ ἔργα καλὰ ἔδειξα ὑμῖν ἐκ τοῦ πατρός·) 그것들 중 어떠한 것으로 나를 치려합니까? (διὰ ποῖον αὐτῶν ἔργων ἐμὲ λιθάζετε·)
- (33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περὶ καλοῦ ἔργου οὐ λιθάζομέν σε) 오히려 신성모독에 대하여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βλασφημίας·)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καὶ ὅτι σὺ ἄνθρωπος ὢν ποιεῖς σεαυτὸν θεό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οὐκ 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ῷ νόμῳ ὑμῶν)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ἶπα· θεοὶ ἐστε·)
- (35절)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 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 (εἰ ἐκεῖνους εἶπεν θεοὺς πρὸς οὓς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성경은 꾀하여질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 δύναται λυθῆναι ἡ γραφή.)
- (36절)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를 (ὄν ὁ πατήρ ἡγίασεν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
(ὁμοίως λέγετε ὅτι βλασφημεῖς, ὅτι εἶπον·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εἰμι.)
- (37절)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εἰ οὐ ποιοῦ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μὴ πιστεύετε μοι.)
- (38절) 만약 내가 그것을 행하면 (εἰ δὲ ποιοῦ),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κἂν ἐμοὶ μὴ πιστεύητε),
당신들은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τοῖς ἔργοις πιστεύετε),
그결과 당신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
다 (ἵνα γινώσκῃτε καὶ γινώσκῃτε ὅτι ἐν ἐμοὶ ὁ πατήρ καὶ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 (39절)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까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άλιν πιάσαι),
그러나 그가 그들 손을 벗어 났습니까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αὐτῶν.)
- (40절) 그리고 그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εἰς τὸν τόπον ὅπου ἦν Ἰωάννης τὸ πρῶτον βαπτίζων)
그리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ἔμεινεν ἐκεῖ.)
-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ἦλθ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καὶ ἔλεγον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σημεῖον ἐποίησεν οὐδέν.)
요한이 이 분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πάντα δὲ ὅσα εἶπεν Ἰωάννης περὶ τούτου ἀληθῆ ἦν.)
- (42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ἐκεῖ.)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다시’ 돌을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다시’ (πάλιν)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과 다른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를 위반하면 언젠가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말한 것은 그 전에도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유대사회에서 제거하려 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2-3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일들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로부터 [나온] 일들’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원천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에 대하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그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안식일을 범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역겨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느니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니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으니 이는 대단히 불경스런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선한 일들과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깊게 다룰 예정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유대인들의 주장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100%인간이자 100%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해답을 제공하는 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1:1~3).

“태초에 그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로고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엄청난,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언으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1장 1절~3절까지 내용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요한이 생각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 선불리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런 비판적 태도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힘들었을 테고,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과 행동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인정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³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⁴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1:24).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서 나를 구원하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나요? 그래서 당신은 죄의 몸이 멀해지고 의의 몸을 입은 자가 되었나요? 이처럼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성모독에 관한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의인으로 거듭난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체험도 없이,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 행여라도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0:31~42)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던지려고 돌을 다시 들었습니다 (Εβράστασαν πάλιν λίθους οἱ Ἰουδαῖοι ἵνα λιθάσωσιν αὐτόν.)
-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내가 당신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일들을 보였습니다 (πολλὰ ἔργα καλὰ ἔδειξα ὑμῖν ἐκ τοῦ πατρός·) 그것들 중 어떠한 것으로 나를 치려합니까? (διὰ ποῖον αὐτῶν ἔργων ἐμὲ λιθάζετε·)
- (33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περὶ καλοῦ ἔργου οὐ λιθάζομέν σε) 오히려 신성모독에 대하여입니다 (ἀλλὰ περὶ βλασφημίας·)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καὶ ὅτι σὺ ἄνθρωπος ὢν ποιεῖς σεαυτὸν θεό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οὐκ 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ῷ νόμῳ ὑμῶν)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ὅτι ἐγὼ εἶπα· θεοὶ ἐστε·)
- (35절)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 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 (εἰ ἐκεῖνους εἶπεν θεοὺς πρὸς οὓς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καὶ οὐ δύναται λυθῆναι ἡ γραφή.)
- (36절)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를 (ὄν ὁ πατήρ ἡγάσεν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
(ὁμοίως λέγετε ὅτι βλασφημεῖς, ὅτι εἶπον·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εἰμι.)
- (37절) 만약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εἰ οὐ ποιοῦ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μὴ πιστεύετε μοι·)
- (38절) 만약 내가 그것을 행하면 (εἰ δὲ ποιοῦ),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κἂν ἐμοὶ μὴ πιστεύητε),
당신들은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τοῖς ἔργοις πιστεύετε),
그결과 당신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
다 (ἵνα γινώσκῃτε καὶ γινώσκητε ὅτι ἐν ἐμοὶ ὁ πατήρ καὶ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 (39절)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까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άλιν πιάσαι),
그러나 그가 그들 손을 벗어 났습니까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ῆς χειρὸς αὐτῶν.)
- (40절) 그리고 그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εἰς τὸν τόπον ὅπου ἦν Ἰωάννης τὸ πρῶτον βαπτίζων)
그리고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ἔμεινεν ἐκεῖ.)
-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ἦλθ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καὶ ἔλεγον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σημεῖον ἐποίησεν οὐδέν.)
요한이 이 분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πάντα δὲ ὅσα εἶπεν Ἰωάννης περὶ τούτου ἀληθῆ ἦν.)
- (42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ἐκεῖ.)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4-3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라고].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폐하여 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를,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끼고 다니는 ‘율법책’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라고 선언한 시편 82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도 외우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둔갑시켜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양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경건함, 의로움을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었던 셈입니다. 참으로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취급했을 뿐 아니라 죽어 마땅한 공동체의 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제도들이 들어왔고 그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오히려 성경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는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고, 성령의 깊은 깨달음은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하에 인간들의 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 설교되는 설교 중 많은 내용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반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유명한 학자들의 생각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졌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하곤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천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이며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기도록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덕주의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고 진리가 곧 예수님이니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만약 그가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그로고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폐하여 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이라고 부르셨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약’으로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에이’(εἰ)는 삼단논법과 같은 명백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로고스가 존재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로고스이고 그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책’에 오류가 없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여 질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반론의 여지를 없애신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을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계셨으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로고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까?”라고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